김은옥 작 '보자기'

이재숙 작 '오징어 꽃'

스스무 요나구니 작 '숭례문 광장'

오방색의 남도 맛 세계를 사로잡다

음식 재료로 만든 디자인 작품 외국인 등 관람객 호평

맵고, 달고, 시고, 짜고, 쓴 남도 음식이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음식에 담긴 시각적인 요소가 독특한 디자인적인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8일~11월4일)가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에 들어서면 신선로와 구절판, 김치 등 맛깔스러운 음식이 눈을 즐겁게 해준다. 오정미 큐레이터가 선보인 주제전 '맛'섹션은 예술 작품에 견줘도 손색없는 멋진 상차림을 내놨다.

관람객을 맞는 첫 작품은 이한나의 '오광'. 화투 놀이에 쓰는 다섯 장의 '광' 화투패를 쌀, 고추, 김, 콩, 깨, 대추를 붙여 형상화했다. 황, 적, 청, 흑, 백 등 오방색을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음식 속에 담긴 요리사의 정성과 색채 감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오정자 작 '태극 상'

또 깨 하나하나를 핀셋으로 붙인 과정을 통해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디자이너'이고, 그 음식이 아름다운 디자인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의 둥그런 상(원반상)에 아크릴 페인트로 태극, 팔괘 등을 그려 넣은 뒤 이 상을 전시장 벽면에 붙인 '청담회'의 공동작품 '아름다운 우리이야기'는 하나의 추상 작품에 가깝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기기 훨씬 이전, 상을 만들던 소목장이 필요에 따라 나무를 깎고 색을 칠했던 '자연발생적 디자인'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 최덕헌, 남기령씨 등이 선보인 '아름다운 우리 음식이야기2'도 조각 작품 못지 않는 예술성을 지녔다. 오징어·문어 살을 얇게 도려내 갖가지 문양으로 장식하는 전통 음식 기법인 '문어오리기'(문어조·文魚條)는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오정자의 '고지도'는 팔도 음식의 특징을 지도로 표현한 이색 작품이다. 각 지역의 음식 특색을 표시한 작은 상을 옛날 지도 위에 올려놓아 시각적인 효과와 재미를 더했다.

한국 요리에 빠지지 않는 붉은 고추를 전시장 바닥에 펼쳐놓은 일본인 요리전문가 스스무 요나구니의 '숭례문광장'은 하나의 퍼포먼스이다.

나유미 작 '의례 상'

나주에서 공수해온 붉은 청양고추 20kg을 8개의 대형 한지조명 위에 올려 거대한 탑을 형상화했다. 한국인의 음식 문화에 담긴 눈물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정미 큐레이터는 "음식에는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이 담겨있다"면서 "전통 음식의 아름다움 속에서 디자인적인 가치와 실마리를 찾아보는 즐거운 전시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의 명함 다 모였네!

'비즈니스 카드'전 7천여종 선보여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국내외 아름다운 명함을 한 자리에 모았다. 오는 29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에서는 다양한 명함을 감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카드'(사진) 전이 열린다.

광주디자인센터와 ㈜삼원특수지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에는 단순 소개 기능에서 벗어나 예술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7천여종의 명함을 선보인다.

또 명함의 역사, 기능,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자료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용모(인디디자인대표) 큐레이터는 "명함은 작은 크기지만 로고심볼, 서체, 편집 등 그래픽디자인의 정수가 담겨있다"면서 "이 전시는 비즈니스의 첫 단계인 명함에 함축돼 있는 디자인의 세계를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611-50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비극적으로… 코믹하게…

아기자기한 오페라 무대

강숙자오페라라인·광주 오페라단 정기공연

광주의 대표적 오페라단인 강숙자오페라라인과 광주오페라단이 정기공연을 갖는다.

두 단체 모두 규모가 큰 작품 대신 아기자기한 두 개의 작품을 준비했다.

강숙자오페라라인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초인종' 두편을 무대에 올린다. 25일 오후 7시30분, 26~27일 오후 3시·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강숙자〉

〈임해철〉

도니제티의 '초인종'은 늙은 약사와 결혼한 사촌을 짝사랑하는 주인공이 여러 사람으로 변장한 후 약을 지어달라고 수시로 약사를 찾아가 두 사람의 첫날밤을 훼방놓는 내용을 그린 희극이다.

아름다운 간주곡으로 많이 알려진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시골의 기사도)는 사랑하는 연인과 맺어지지 못한 주인공들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비극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홍석임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마명준·조규철·오두영·이호민·이경은·김윤정·박희현·정평수 등이 출연한다.

광주오페라단(단장 임해철)은 26일(오후 3시·7시30분) 5·18기념문화회관에서 '잔니스키키'와 '더 텔레폰'을 공연한다.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유명한 푸치니의 '야니스키키'는 유산 상속을 둘러싼 친척들의 욕망과 암투를 유쾌하게 해결하는 잔니스키키의 활약상을 그린 코믹 오페라다.

메노티 작품 '더 텔레폰'은 전화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여자 친구에게 청혼하기 위한 남자주인공의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이다.

사쿠라이 유키호, 한주연·김남경·박병국·유형민·이정미·노현숙·강동명·김수영씨 등이 출연한다. 연출은 정갑균·정선아씨. 문의 062-571-68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교사들이 펼치는 연극은 어떨까

광주교사 연극모임 꿈틀 내일 호남대 소극장

광주 교사 연극모임 '꿈틀'의 세번째 정기 공연이 25일(오후 7시)과 26일(오후 4시·7시) 호남대 쌍촌캠퍼스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초콜릿 언더그라운드'다.

영국 소설가 알렉스 시어러의 원작을 무대로 옮긴 '초콜릿 언더그라운드'는 초콜렛이 완전히 금지된 세상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초콜릿을 금지한 상황에서 초콜릿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스머져와 헌트리가 의문의 암호를 풀게되면서 신세계를 만나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다.

양승복·고영석·김지은·김상옥·김선진·이형선씨 등이 출연하며 박종연씨가 연출을 맡았다. '연극으로 여는 아이들의 꿈'이라는 구호를 걸고 출발한 '꿈틀'은 연극으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연극을 매개로 아이들과 교사 모두 '꿈틀'대기를 바라는 모임으로 지금까지 '날개', '꽃들에게 희망을'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무료 공연. http : //cafe.daum.net/kumtle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 어린이 책잔치

내일 풍암동 근린공원 독서축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책과 친구하며 사귈 수 있는 신나는 독서축제가 열린다. 26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신암마을 근린공원서 펼쳐지는 '제1회 빛고을 어린이책잔치'.

아이숲어린이도서관(관장 정봉남)이 주최하고 광주시민센터와 바람개비어린이도서관 등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다문화 다함께,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다문화 가족, 어린이,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전시마당, 놀이마당 등 총 6개 마당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열렸던 아이숲어린이책잔치 한마당 바깥도서관 프로그램.

전시마당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어린이 책과 다문화 가족 작품, 어린이도서관 활동과 관련한 전시가 펼쳐지며 인형극단 '꼬까신'에서 준비한 다문화 연극 '함께해서 행복해'가 공연된다. 문의 062-652-127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